



BROOKLINE COMMISSION FOR WOMEN

아시아인 혐오 및 여성 폭력을 규탄하는 AAPI 커뮤니티 연대 성명*

조지아주에서 아시아 여성 및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6 명을 비롯해 총 8 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브루클라인 위원회(Brookline Commission for Women)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브루클라인과 전국의 AAPI 커뮤니티가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아인 혐오와 인종차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규탄의 대상이며, 이러한 혐오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AAPI 커뮤니티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시아인과 그 후손들에게 가해진 충격적인 폭력을 지탄하는 시기에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성 폭력은 피해자와 사회가 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오랜 세월 이어진 아시아인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AAPI 여성은 특히 이러한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0 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사건은 1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 이러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최소 [67 건](#)의 아시아인 혐오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브루클라인 또한 이러한 인종차별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인 혐오는 수백 년간 미국 내 법률 및 관습 속에서 지속되어 온 차별,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875 년 페이지 법\(Page Act of 1875\)](#), 2 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감금, 동남아시아 지역의 미군 갈등으로 인한 난민 이주, 9/11 사건 이후 이슬람교도 및 남아시아인 커뮤니티 감시, COVID-19 팬데믹 사태 중 아시아인 소유 비즈니스에 대한 구매 거부, 기물 파손, 괴롭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불평등, 차별과 맞서 싸우며 목소리를 내고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성을 위한 브루클라인 위원회는 침묵 당하고, 멸시당하고, 위협당하고, 무시당한 모든 AAPI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귀담아듣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종차별 및 여성 혐오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이의 가족이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는 브루클라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브루클라인 위원회의 사명은 모든 여성을 위한 평등 및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여기서 모든 여성이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규정하는 모든 이를 포함합니다.*